

저소득층 자활사업 148억원 투입

전주시, 빈곤 해소·자립 위한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자활근로사업 추진

전주시가 2023년 새해에도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자활사업에 총 1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총 96억원이 투입되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은 △다회용기

세척·공급사업 △커피박 재활용사업 △천기저귀 렌탈사업 △친환경애견간식사업 등 자원순환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회용기세척사업 △친환경애견수제간식사업 2개 사업단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커피박재활용 △천기저귀렌탈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다회용컵렌탈 등의 사업 규모를 확대해 50여 개의 신규일 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다회용기세척·공급사업'은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과 커피숍 등에 다회용기를 세척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15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다.

사업은 전주지역자활센터가 맡아 운영하며, 현재 150명 규모의 사업장 및 시설을 구축이 완료됐다.

또한 '커피박 재활용사업'의 경우 커피점점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재활용해 연필과 화분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으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덕진지역자활센터는 커피박 비료화 등 제품의 다양화와 체험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운영 규모를 확대해 내년에는 20명 규모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지역에는 2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식품 제조가공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 △어르신 돌봄도사탁 공급 △친환경세차 △천기저귀 렌탈 △수제품예품 생산 △간병사업단 등 2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는 △도시형신센터 내 식당 운영 △자전거 수리 및 대여 △재활용품 수거운반 △공공기

관 청소 △공공기관 내 카페운영 등 14개 사업단이 운영된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수요 및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단순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위탁기관인 전주지역자활센터(완산점)를 방문하거나 전화(063-281-0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영 기자

새해에도 시민 마음건강 돌본다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마음을 돌보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오는 2023년 1월 2일 운영을 앞두고 있다.

마음치유센터는 새해에도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이 힘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4주 과정 포함 6주·8주 과정의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4주 과정 '나도치유, 통합예술치유, 미술치유, 컬러치유, 향기치유(야간), 수목치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6주 과정 '심영불 명상, 치유타로(야간) 명상' 등이 진행, 8주 '술 치유, 요가(야간)'로 구성됐으며,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내마음에 행복정원 가꾸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덕진보건소와 5개 등

주민센터(송천2동·금암2동·평화1동·중화산1동·삼천1동), 치유농장 '힐링팜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프로그램 진행 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 전주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trinidhealingcenter) 또는(063-281-8576)로 신청하면 된다.

시의 내년 마음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상담과 마음건강 전문가를 활용한 대규모 시민강좌,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심리성장 교육 등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선 전주보건소장은 "2023년 새해에도 전주시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공간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년 대상 금융복지 상담·교육 등 진행

전주시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청년들에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부모 등의 사망 이후 상속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복지 상담을 했다. 상속 포기 및 한

정승인,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등 대상자에 따라 법률지식 및 금융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누리집(www.jfbc.jwf.or.kr)을 확인 또는 전화(063-281-0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영 기자

"화재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위력"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전주완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비 권장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차량화재 시 화재초기 신속한 대응과 재산·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권장했다.

최근 11월 임실군 덕치면에서 자동차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며 1명 화상, 1,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기계적 요인과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연료 등으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상단에 '자동차 전용'이라고 표기되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에 강한 제품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KC인증 마크가 붙어있고 KFI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등 예방법 준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겨울철 강추위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 얼어붙은 도로 표면이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어 아스팔트 틈새를 도포 하듯 살얼음이 낀 도로 결빙 현상을 말한다. 특히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는 평소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미끄러워 교통사고 발생과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내 도로 위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196건이 발생했으며 10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중상을 입는 등 37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간대로는 오전 7시~9시에 69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35%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는 찬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교량과 터널 주변 또는 해가 잘 들지 않는 도로에 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예방법으로는 주행 전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겨울용 타이어 장착, 주행 중 급제동·급회전 금지,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등이 있다. 이미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운동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게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블랙아이스를 피하는 건 어렵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법을 준수한다면 큰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블랙아이스는 주로 오전 6~8시 사이에 발생하며,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시기에는 도로 위 얼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도로결빙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제설취약구간 및 주요 거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주시 완산구, 겨울철 도로·보행환경 긴급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도로결빙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제설취약구간 및 주요 거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완산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중점 제설기간으로 살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상습결빙 도로관리를 위해 현재 '제설차량 1,150톤, 덤프트럭, 살수차 등 60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했다.

엄 청장은 제설취약구간인 동부대로 경사구역을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설장비 긴급 점검하고, 대설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체제 가동 등에 대한 부서간의 신속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